

전남광주특별시, 울산과 車 제조 AI 전환… 휴머노이드 실증

2027년부터 5년간 580억 투입
의장공정 특화 거점 단계적 구축
고위험·고난도 작업 자동화 확대
생산현장 인력공백 대응기반 마련
미래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인 전남광주와 울산이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을 통한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7일 울산에서 '자동차산업 분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현 통합특별시 미래차산업과장, 송규원 울산광역시 산업전환과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은 국내 대표적 자동차 생산도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위험·고난도 공정 기피 현상 등에 따른 생산현장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인간형



울산 자동차산업 제조 M.AX 협력 협의회.

/전남도

로봇(휴머노이드)과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20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40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양 도시에 각각 45억원씩 총 90억원이 포함됐다.

양 도시는 협력사업을 통해 ▲자동차 의장공정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실증

센터 구축 ▲인간 수준의 제조 휴머노이드 양성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제조환경 휴머노이드 내구·신뢰성 실증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제조사 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차-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아틀라스·옵티머스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도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로서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 EV공장을 방문해 미래 전기차 생산현장을 견학

했다.

이승주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광주지역본부장은 "전남광주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작업 안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검증 표준은 향후 지역 부품기업 전반으로 확산해 미래차 전환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진수 울산테크노파크 센터장은 "울산은 차체와 대형모듈 등 고중량·고위험 공정에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우선 투입하고, 사전검증과 실증을 거쳐 현장 적용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미래차산업과장은 "자동차 제조공정에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도입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국회와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하동, 인구 6년 7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8월 말 3만9565명 전월비 26명 늘어
귀농·귀촌 유입에 청년 인구도 순증

2020년 1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하동군 인구가 6년 7개월 만에 순증가를 기록했다.

하동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군 전체 인구는 3만 9565명으로 전월보다 26명 늘었다. 증가 요인은 전입 240명 등 총 244명, 감소 요인은 전출 176명·사망 41명 등 총 218명으로 집계됐다.

하동군 인구는 지난해까지도 매년 2% 가량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3년 말 4만 1606명이던 인구가 이번엔 3만 9565명까지 준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있었지만, 그 공백을 채워온 것은 매년 인구의 4% 안팎에 이르는 귀농·귀촌 유입이었다.

이번 순증가는 이런 구조적 흐름 속에

서 나온 소규모 반등으로 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어르신 건강 관리, 청년 정착 지원 등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군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 8월 한 달간 전국 최초로 '무더위 피해 예방단'을 운영하고 397개 전 경로당에 특별운영비 1억 1960만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 대응한 결과, 8월 사망자는 41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어 자연감소 폭도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인구도 전월 대비 19명 순증가했고, 중장년층 인구 감소 폭은 42명 완화됐다. 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파리서 K-컬처 연계 관광마케팅

K-컬처·트래블 페스티벌 참가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K-Culture & Travel Festival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경남도 파리사무소는 지난해 6월 개소한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로, 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설치된 사무소다.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경남과 유럽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참가한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각국에서 순회 개최하는 방한 관광 홍보 행사로, 앞서 지난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열린 바 있다.

K-컬처 활용 방한 관광 관심도 제고



경남도가 'K-Culture & Travel Festival 2026'에 참가해 경남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경남도

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기업체 등 2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전시·홍보는 물론 K-Pop, K-댄스, 전통문화 공연,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세계은행(World Bank)과 인도정부·유관기관 목포 방문.

/목포시

목포, 김산업 육성모델 글로벌 주목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35명 방문

세계은행(World Bank)과 인도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7일 목포를 찾아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목포시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해조류 산업 확대 및 기술교류 협력사업」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

은행 관계자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인도 정부·유관기관 등 35명이 목포를 방문해 목포의 김산업 육성정책과 산업화 및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열린 주제발표에 참석해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조류연구센터와 한국김산업연합회로부터 국내 해조류 연구 및 김산업 현황과 발전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충남, 창업기업·투자자 교류 확대

15~16일 천안서 창업 페스티벌
IR·투자·오픈이노베이션 진행

충남도가 오는 15~1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충남도는 중소기업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의 사전등록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자, 대학,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START HERE, GROW NEXT' & #8211; 시작은 누구나, 성장은 더 멀

리'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세션, 기업설명회(IR)·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모두의 창업 챌린지, 전시·체험부스, 원스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비롯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창업지원기관, 청년 및 일반 참관객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인재·투자·창업 기반을 집적하는 창업도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지역 이모저모

경상국립대학교

항공방산 석·박사 120명 양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항공방산 분야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 석·박사급 전문 인재 120명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한다. 2026년부터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 172억원이 투입된다. 항공방산은 산업통상부가 올해 로봇과 함께 처음 지원 대상에 추가한 분야로, 비수도권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 첨단 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1200여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지원해왔다. /경남=이도식 기자

창원시

추석 연휴 파크골프장 개방

창원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가족과 시민들이 여유롭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상 이 기간은 원래 전부 휴장일로 지정돼 있으나, 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인 만큼 파크골프 수요를 고려해 휴장일을 분산,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파크골프 인구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0년 4만 5000명이던 등록 동호인은 지난해 18만 4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최우수 11회 연속 수상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 교육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11회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본청 기획예산관 하지우 주무관의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 학교 전기요금 속, 누수 예산 찾아!' 사례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전기요금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 적용돼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산청군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속도

산청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한 '2026년 법인·개인사업자 전 기승합차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은 부산교통, 산청교통, 현대자동차, 펌프킨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청군 맞춤형 무공해 대중교통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펌프킨은 전기버스·전기택시 등 상용차용 대용량 급속 충전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충전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산청군은 국비 2억 3900만원, 군비 71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